

공동주택 공시가 광주 2.83%·전남 4.37 ↑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광주 평균 1억2629만원 광역시 최하위...9억 초과 없이 전남 전년대비 43% 상승...평균가는 8103만원 전국 최저

올해 광주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저조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광주는 광역시 중 최하위권 이었고, 전남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 전국 공동주택 1243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44% 상승한 가운데 광주(40만1437가구)의 경우 2.83%로 지난해(15.42%) 보다 상승세가 꺾였고 전남(33만9190가구)은 2.52%에서 4.37%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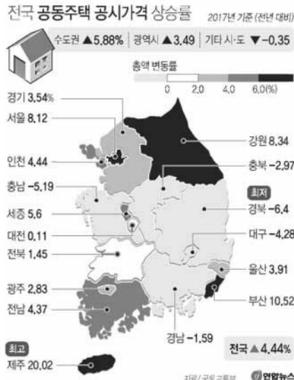
광주는 부산(10.52%), 서울(8.12%), 인천(4.44%), 울산(3.91%)에 이어 광역시 중 하위권에 머물렀고, 전남은 제주(20.02%), 강원(8.34%), 세종(5.6%)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다.

경기(3.54%)와 전북(1.45%), 대전(0.11%)이 상승세를 유지했고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은 하락했다.

광주는 벤처타운조성 등 개발사업(동구)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남구),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광산구), 첨단2단지 개발지구 입주(북구) 등 재개발 사업 진행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7만2623가구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12만5852가구,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만7538가구,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6022가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27가구, 9억원 초과는 전무했다. 또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3만6732가구였으며, 2000만원 이하도 8078가구나 됐다.

전남은 지난해 신규주택 분양가가 상승



했고 택지개발지구가 성숙과 전세수요 감소 전환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외부 관광객 증가와 곡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별로는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12만6740가구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9만9499가구,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9만3249가구였다. 2억

원 초과 3억원 이하의 6856가구,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366가구였다. 2000만원 이하도 1만2480가구나 됐다.

전국 시·도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1억 7688만7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는 1억 2629만8000원으로 서울(3억608만2000원), 대구(1억6476만8000원), 부산(1억 6173만7000원), 울산(1억6036만9000원), 인천(1억3997만1000원)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전남은 8103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1억8509만3000원), 제주(1억4112만4000원), 경남(1억2688만7000원), 충남(1억106만7000원), 충북(9813만 3000원), 경북(9239만6000원), 전북(9033 만8000원), 강원(8932만4000원) 순이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기간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09.46 (+1.62)
-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1)
- ↓ 코스닥 631.11 (-4.00)
- ↑ 환율 (USD) 1130.10원 (+5.00)



광주은행 153명에 행운술솜 장학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이 27일 '2017년 1학기 행운술솜 대학등록금 이벤트' 당첨자를 본점으로 초청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추첨을 통해 총 153명의 행운의 주인공을 선정했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명에게 장학금 100만원, 2등 당첨자 2

명에게는 장학금 50만원, 행운상 150명에게는 기프트콘을 전달했으며,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지역 우수제품 국제청이 홍보합니다 광주청사·세무서 등 전시

광주지방국제청(청장 김희철)은 지역 소재 전통·향토업소에서 생산한 제품홍보를 위해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및 산하 세무서에 전시·홍보 공간을 마련했다.

광주지방국제청은 문화산업인 전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하여 '03년부터 전통·향토업소로 지정하여 납세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향토업체는 사업규모·자금력이 영세하여 판로개척이나 광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민원인 등 출입이 잦은 세무서와 광주지방국제청에 상설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업체별 현황과 주 생산품목을 주기적으로 순차 게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상공인, 타 지방국제청 등을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통해 호남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희철(맨 왼쪽) 광주지방국제청장이 28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에 마련된 지역 소재 전통·향토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지방국제청 제공>

지역 中企 제품 4개 우수조달품 지정

대상품목 82개로 늘어

지역 중소·벤처기업 우수 제품 4개 품목이 새로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됐다.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정환)은 27일 전남 지역 소재 업체인 (주)차후에스엔피

의 '3중 구조 삼중 PVC관'과 (주)원진원의 '외유 유도형 스테인리스 칼라 물탱크', 동아세라믹(주)의 '친환경 점토벽돌', 주식회사 대웅산업의 '상온경화형 노면표지용 도로' 등 4개사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품목으로 새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전남 지역 우수조달품목은 68개사 82개 품목으로 늘었다.

우수조달품목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와 해외조달 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정환 광주조달청장은 "지역 기업들도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당 "금호타이어 매각 신중해야"

비상경제정책단 회의 채권단 컨소시엄 불허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은 금호타이어 매각은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용섭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한 비상경제대책단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 이슈로 떠오른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점은 없는가'를 주제로 전날 열린 '제8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책단은 "금호타이어는 광주·전남에만 38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190여개의 협력업체를 보유한 향토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해 왔다"면서 "중국에 2곳의 공장만 가지고 내수 사업만 하는 글로벌 순위 34위에 불과한 더블스타가 글로벌 순위 14위인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핵심 기술만 빼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제2의 쌍용차 먹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권단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매각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대책단은 "우선 매수권을 보유한 금호아시아나측이 지속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했기에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한 번도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m²(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²(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m²(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